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❺ 존재를 보는 요령–삼신의 원리 (1)



▶한줄요약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대승경전 불신관의 시작이다. 대승경전과 관련 불교미술들은 법신의 자리를 기본으로 한다.

불교경전·미술 관통하는 기본, '三身의 원리'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

'물고기는 물을 아는가?' 즉, '물고기는 자신이 바다라는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라는 물음이다. 답은 '모른다' 이다. 단, 깨달은 물고기는 '안다.' 이는 '사람은 자신이 허공(또는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라는 물음과 같다. 답은 '모른다' 이다. 단, 깨달은 사람은 '안다' 이겠다. 우리는 허공이라는 바탕 공간과 그 안의 기체(공기)를 매양 인식하고 살지는 않는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사람도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 하지만, 물의 바탕 공간, 공기의 바탕 공간을 일상에서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육안)은 피사체(대상이 되는 물체)만 보기 때문이다. 그 피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 은 보지 못한다.

존재의 바탕 자리 '법신'

비유하자면, 영상과 스크린의 관계이다. 우리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피사체인 '영상' 만 보지, 그 영상이 비춰지는 바탕인 '스크린' 은 보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의 존재도 평생 그렇게만 봐왔다. '나' 라는 피사체만 보이고, 그것에만 평생 몰두돼 있다. '개체의 감옥' 에 갇혀 있는 것이다. 마음은 몸에 갇혀있고, 또 반대로 몸은 마음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맞물린 조건들의 작용과 압박에 갇혀 있다. 옥죄여오는 조건들의 억압을 우리는 팔자 또는 운명이라 부른다. 그래서 자유로운 바탕 공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탕 공간' 의 중요성에 대해 운운하는 이유는 '법신' 을 말하고자 함이다. 법신에 대한 깨달음은 '존재' 라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한다.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글귀인 '전도몽상(轉倒夢想)'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전도' 는 바르게 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뒤집어 보는 것을 말하고, '몽상' 은 헛것을 현실로 착각한다는 말이다. 여태껏 개체의식(또는 자의식)에 갇혀서 전도몽상으로 세상을 보았다. 즉, '나' 라는 '개체' 에서 '주변' 을 보았는데, 이제는 '전체' 라는 주변에서 '개체' 를 보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법신과 하나 되면, 이윽고 우리는 기나긴 전도몽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생토록 맹렬하게 헛발질한 고단함을 멈출 수 있다.

허공에 가득한 그저 '아는 마음'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서 일경성(일경성에 대해서는 〈깨달음의 미학〉 연재 1, 2회 참조)을 체험하면, 바탕 자리에 눈을 뜨게 된다.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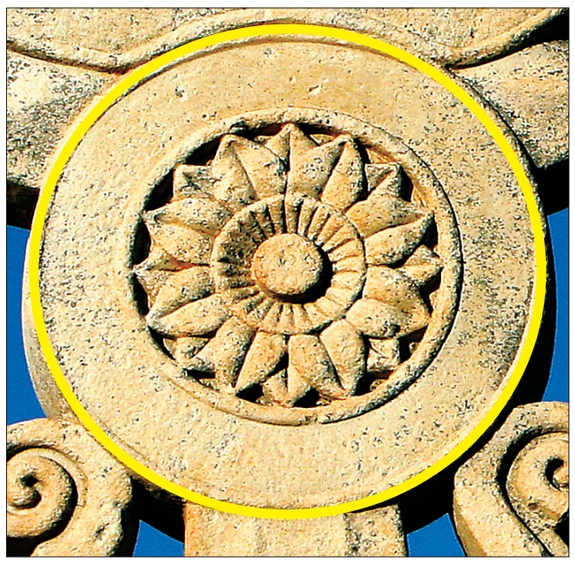
특정 대상(사마타 주제)에 집중→ 대상이 (솜구름처럼) 희뿌옇게 퍼진다(니밋따가 나타난다) → 대상이 투명해짐 또는 무량한 빛으로 변함 → 대상의 사라짐 → 대상에 붙어 있던 인식(나)도 사라짐 → 나와 대상(주체와 객체)이 모두 사라지면서 → 바탕자리와 하나 됨 또는 바탕자리가 드러남.



도판① '법신→보신→응신' 삼신의 원리가 적용된 초기 불교미술. 산치 제1탑 중 북쪽 탑문의 부분. 기원전 3세기 인도서 조성됐다.



도판② '법신' 은 탑문의 일원상으로 표현된다.



도판③ '보신' 의 모습은 연꽃으로 묘사된다.

처음에는 집중하는 나(주체)가 있고, 집중의 대상(객체)이 따로 분리돼 있다.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나와 대상' 이 하나가 되게 집중을 몰아가면, 결국 주객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 라는 개체의식(자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탕의식' 으로 전환이 온다. '나' 라는 몸과 마음에 갇혀있던 의식이 광활한 바탕으로 풀려나게 된다. 위에 '바탕 공간' 또는 '바탕 자리' 등의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바탕 의식' 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그 이유는 바탕 자리의 성질 또는 성품이 '아는 마음' 이라는 '의식' 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법신' 이라 한다.

아름다운 해방, 진정한 휴식

드넓은 바탕을 인식하는 순간, '나' 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 바탕 의식으로 전환하면, 개체의식(자의식)은 먹통이 된다. 끊임없이 파도치던 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대승 佛身觀 시작

불교미술서 '법신'은 '일원상'으로 표현돼

초기 불교미술 산치대탑도 일원상들 조형

대승경전, 미술들 모두 '법신'의 자리 기본

온은 멈추고, 마침내 쉴 수 있다. 그 이유는 바탕 의식에서 보면 '내가 객관화' 되기 때문이다. 바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든든한 친구를 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언제든 바탕에 기대어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탕 의식(또는 법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그것은 '여여(如如)하다' '고요하다' '순수하다' '청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부동(不動)이다' 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교 신자라면 '여여하다' 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여' 는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다.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일체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면 반응하고, 반응하면 흔들린다. 분별함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부동지(동요되지 않는 경지)' 라고도 부른다. 여여하게 보이기에 세상은 그저 평등할 뿐이다. 어떤 판단도 어떤 개념도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바탕의식을 '반응 없이 아는 마음' 이라고도 부른다. 일체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신 앞에는 '청정(淸淨)'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청정법신' 이라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순수 의식' 이라고도 부른다.

중생의 마음(탐진치貪瞋癡)은 좋고 싫음의 분별과 반응으로 오염 일로이다. 반면, 법신의 마음은 무분별과 청정함으로 충만하다.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되지 않는 이러한 성품은 '물방울과 연잎' 에 비유된다. 연잎 위의 물방울은 또르르 구른다. 연잎 위에서 퍼지거나 스미거나 섞이지 못하고 본래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굴러다닌다. 물방울은 연잎의 돌기 위에 떠 있기에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물방울이 연잎을 더럽히지 못하듯, 온갖 사물들이 바탕의식을 더럽히지 못한다. 하지만, 온갖 사물들은 바탕의식 속에 있고, 바탕의식은 이들을 고요한 적멸 속에서 그저 여여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나'와 '불교미술'을 보는 요령

이러한 바탕의식을 근본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로 설정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불신관(佛身觀)의 시작이다.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인 〈8천송 반야경(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에는 '법신(Dharmakāya)' 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반야바라밀다는) 실로 여래들의 진정한 사리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불타세존들은 법신이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진신(眞身)으로 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법신의 완성체로 볼 것이다.' 그래서 여래들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궁극의 실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존께서는 진리의 완성인 '반야바라밀다' 를 '법신' 으로 규정하고, 본인도 '궁극의 실재로서의 법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불교미술에서 '궁극의 실재로서의 법신' 은 '일원상' 으로 표현된다. 초기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산치대탑의 탑문 한 가운데에는 '법신' 의 '일원상' 이 조형돼 있다.(도판①) 코끼리가 등에 텅 빈 일원상을 떠 바치고 있다.(도판②) 일원상 안쪽으로 작은 돌기들이 둘러있기에 법륜이라고도 추정되지만, 법륜 역시 일원상의 '원(圓)' 을 기본으로 한다. 법신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청정한 에너지를 보신이라 한다. '보신' 은 불교미술에서 '연꽃' 으로 조형된다.(도판③) 그리고 연꽃에서, 중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응신' 이 일어난다.(도판①)

종합하면, 삼라만상이 존재하려면 우선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 공간에는 바탕 의식이 있다. 바탕 의식을 법신이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보면(자의식에서 바탕 의식으로 전환이 일어나) 내가 객관화되어 보인다. 그 결과 호흡은 자연호흡으로 돌아오고, 초연한 평화가 온다. 모든 대승경전은 법신의 관점에서 쓰여 있다. 그리고 모든 불교미술도 법신의 자리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자리를 깨닫게 된다면, 경전이든 미술이든 그 원리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불교경전과 불교미술의 참으로 방대하고 유구한 전통을 관통하는 것은 '법신→보신→응신' 의 삼신(三身)의 원리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3개월 속성 교육 (제6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필기구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영상녹음 이메일자료 발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